

투데이 칼럼

쓰레기 줄이기 어렵지 않아요! 함께 해요!

“아 빠, 설날에 못가요” 객지에서 직장에 다니는 큰딸이 전화 온 말이다. 보고싶은 부모형제 자녀 등 가족을 만나기 위해 전라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게 우리네 명절 풍경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어 가족들과 이별 아닌 이별을 하게 됐다. 이번 설 명절에는 이러한 몸살 대신 멀리 있는 가족들의 인부를 묻고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선물 배달이 유난히 많았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일상화된 비대면 접촉으로 음식 배달, 택배 서비스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1회용 쓰레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한해였다. 인간의 삶은 먹고 자고 쓰는 일상 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 누구라도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함으로써 자아 실현, 사회진출 등을 이루어 진행한다는 말이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해당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일상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바로 쓰레기다.



전 민 규

고창군청 환경시설사업소 시설관리팀장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폐기물’은 ‘처리’라는 단어를 연상하게 하며 처리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데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조금 덜 쓰고 더 아껴 쓰면 된다. 이미 사용한 것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 손을 씻고 난 후 사용하는 종이 수건도 한 장이면 충분하다. 불기를 털고 한 장으로 뉘고 나면 불기가

사라진다. 필자의 경우 한 번 사용한 종이수건은 버리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어 다시 쓰기도 한다. 물기만 닦았으므로 더럽혀져 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두 장 세 장 뽑아서 써 버리는 습관도 함께 버리도록 하자. ▲ 음식물의 경우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악취발생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혹자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자원낭비면서 악취, 폐수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 페트병, 캔, 유리병, 플라스틱 등 다 쓴 물건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어 낸 후 속이 보이는 투명함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다시 쓸 수 있도록 자원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원재료가 된다. 특히 페트병 등에 붙은 라벨을 제거하고 배출하는 센스를 발휘해 준다면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 한다. ▲ 또한 종이팩과 종이류는 따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우유팩, 두유팩 등 종이팩의 원료인 천연펄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재활용하는 경우 고급 화장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탈바꿈된다. 이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쓰레기 분리배출 그리 어렵지 않다.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환경을 보전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갖추어 함께한다면 쓰레기 처리가 풀려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의 참여가 절실한 이유다

사설

정읍 3대 연수원에 거는 기대

정읍에 들어설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NPS 연수원과 전북은행의 JB금융그룹 연수원,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교육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연수원의 대상 부지는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이용 시 서울 용산역과 수서역에서 정읍역까지 1시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최상의 지리적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전주·광주 등 인근 대도시와도 차량으로 40분 거리다. 호남고속도로 내장산 나들목에서 5분 거리에 인접해 있는 등 사통팔달로 연결된 뛰어난 교통 인프라가 있다. 특히 연수원 부지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도심지와의 연계성이 뛰어나 연수원 건립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정읍시 부전동 일원에 동지를 트는 국민연금공단(NPS) 연수원(부지 18,638평)은 2021년 설계에 착수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7,500여 명의 직원이 연수원을 이용하게 된다. 지역 농축산물 소비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JB금융그룹 통합 연수원은 이미 첫 삽을 떴다. 이 연수원은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내 약 1만 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된다.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곳은 JB금융그룹 인적 인재 양성의 요람뿐만 아니라 정읍의 랜드마크 체류형 시설이다. JB연수원에는 연수동과 숙박동, 운동장 등이 들어선다. 완공 후 전북은행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인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과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CBank), JB증권 베트남, JB캐피탈 미얀마 등 해외 자회사까지 그룹사 직원 4,000여 명의 교육을 담당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은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이전을 최종 확정했다. 7만 3,000여㎡의 부지에 교육관과 생활관, 직원 숙소, 다목적교류센터 등이 들어선다. 교육관은 매주 200여 명의 전기 안전 관련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게 된다. 정읍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적의 연수 도시로 발돋움하기 바란다.

익산시 홀로그램 6개 기업과 투자협약

익산 지역에 홀로그램 기업이 잇따라 동지를 틀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익산시는 홀로그램 관련 6개 기업들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들은 익산에 연구소와 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홀로그램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참여한 기업은 (주)디아미디어·(주)디자인레벨·(주)마부스·(주)마인더스·(주)조이그림·(주)프루이스트 등 6개 기업이다. 홀로그램(hologram)이란 홀로그래피에 의해 생성된 3차원 사진을 말한다. 필름이나 감광 건판 등 기록 매체에 레이저 광 등 빛의 간섭 패턴을 기록한 것이다. 홀로그램은 어떤 대상 물체의 3차원 입체상을 재생한다. 사람의 머리를 기록한 홀로그램의 경우 보는 위치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한다. 어떤 위치에서는 왼쪽 모습이 보이고, 다른 위치에서는 얼굴이 보이고, 또 다른 위치에서는 오른쪽 모습이 보인다. 기술적으로는 두 개의 레이저광

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 효과를 통해 화상이나 색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홀로그램은 은행권의 위조방지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홀로그램은 복사할 경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국내 은행권에는 오만원권에 대형 홀로그램이, 만원과 오천원 권에는 패치형 홀로그램이 각각 적용되어 있다. 1948년 영국의 물리학자 데니스(Dennis, Gabor)가 이 원리를 발견하여 노벨상의 영예를 안았다. 1960년대 레이저의 개발로 본격적인 홀로그램의 응용 기술이 발전되었다. 익산시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5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홀로그램 산업의 선두에서 홀로그램 산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익산은 홀로그램 중심의 신 산업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홀로그램 관련 기업들이 익산과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아르메니아 국기 흔드는 소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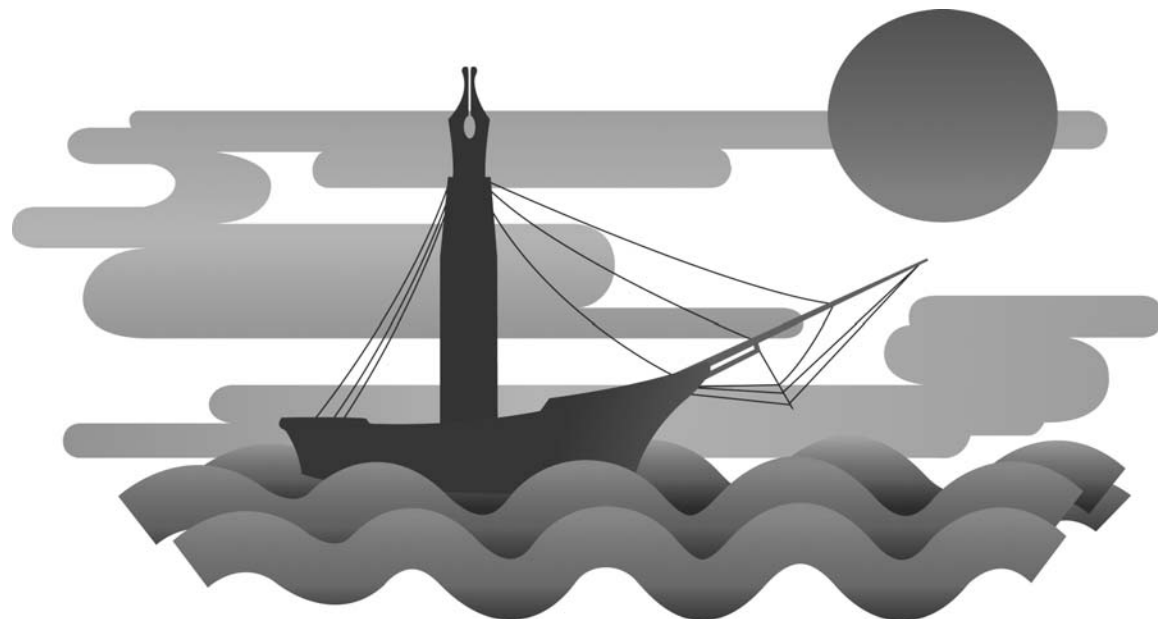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1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니콜 피시난 총리 지지 집회가 열려 한 소녀가 아르메니아 국기를 흔들고 있다. 아르메니아에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피시난 총리 지지자들과 야당 지지자들이 대규모 대을 집회를 벌이고 있다. 피시난 총리는 지난 11월 아제르바이잔과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6주간의 격렬한 분쟁을 끝낸 평화협정에 서명한 이후 야당의 사임 요구에 직면해 있다.

임기 시작한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



오늘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최초의 흑인 여성 사무총장인 오콘조이웨알라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를 벗어나야 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